

연구소 소식

2011년도 제1·2차 육아지원정책포럼 개최

3월 25일(금) 오후 3시에는 원내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1차 육아지원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이며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임강섭 보건복지부 사무관,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애리 서울시민간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겸 우림어린이집 원장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4월 21일(목)에는 유치원 종일제와 관련된 주제로 제2차 육아지원정책포럼이 열리며 발제는 김은설 연구위원과 김은영 부연구위원이 함께 맡을 예정이다.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3월 28일(월)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본 연구소는 2010년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서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서문희 선임연구위원)'를 수행하여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육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박용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및 윤덕현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의 축사에 이어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향 및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김명순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6개 보육영역에 대하여 곽혜정 한중대학교 교수, 김영명 마포구립서강어린이집 원장, 김은기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장,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손승희 대전청사새롬어린이집 원장, 이상우 나래어린이집 원장이 두 영역씩 분담하여 토론한다.

당일 공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문의를 즉석에서 접수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6개 영역별 연구자 대표에게 전달하고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개 영역별 연구자 대표로는 김명순 교수(총괄 및 기본생활), 이미정 여주대학 교수(신체 운동), 서소정 경희대학교 교수(사회관계),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교수(의사소통), 최혜영 창원대학교 교수(예술경험), 김선영 명지대학교 교수(자연탐구)가 참여한다.

2011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개최

2011년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4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영유아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이며,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발표 주제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UN의 권고-UN의 일반 논평을 중심으로', '영유아 및 아동권리 침해사례에서 찾는 인권과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태와 실현방안'이며 각각 황옥경 한국아동학회실천위원, 유정은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장, 서영숙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이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도미향 남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경희 한국아동권리학회장, 박진재 푸른보육경영 이사,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정옥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육아정책연구소는 30여개 유관 학회 및 단체로 구성된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운영의 일환으로 네트워크정례회의와 육아선진화 포럼을 연 2회씩 개최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정책세미나 개최

오는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아동패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아동패널은 지난 2008년에 출생한 아동 2,078명에 대한 국내 최초 신생아 종단 연구자료로, 본 연구는 올해 3차년도에 접어들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동패널자료에 관한 그 간의 연구결과와 동향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육 스트레스' 관련 주제로 이정림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하며 나중혜 한남대학교 교수,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정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영환 전북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